

## 조기유학에 대한 접근

고재학 (한국일보 기획취재팀장)

작년 1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영어 사교육에 들어간 비용은 15조원으로 추정된다(삼성경제연구소가 11월15일 발표한 '영어의 경제학' 보고서). 영어 관련 사교육비 14조3,000억원과 토플 토익 등 영어실력 평가비용 7,000억원을 합한 것이다. 우리나라 교육예산 30조1,000억원의 47.5%에 해당하며, 인구가 우리보다 2.6배 많은 일본(5조원)보다 3배 가량 많은 것이다. 해외유학·연수비용을 더하면 연간 2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최근 중산·서민층까지 조기유학 대열에 가세하면서 2000년 9억6,000만 달러였던 해외유학·연수 비용은 지난해 33억7,000만 달러로 급증했고, 올해엔 45억 달러를 훌쩍 뛰어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영어 관련 비용이 국가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 국민들의 영어 관련 투자가 '효용'과 '위험'을 제대로 고려하면서 진행되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주제발표 내용을 봐도 사전에 충분한 계획이나 자녀와의 상의 없이 즉흥적으로 이뤄지는 조기유학 사례가 많음을 알 수 있다. 바람직한 조기유학의 방향을 고민한다는 차원에서 조기유학의 원인과 효과, 대안 등을 간단히 정리해 본다.

### 1. 조기유학이 급증하는 원인

#### 1) 공교육의 경쟁력 상실

- 현행 공교육이 내실 있는 영어교육을 수행하지 못함에 따라 과도한 영어 사교육비 투자. 그러나 영어교육 환경은 후진국 수준이어서 심각한 고비용·저효율 구조 초래

**2) 교육의 다양성 인정하지 않는 평준화 제도**

-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영어교육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으나 국제학교·특목고 신설 등은 교육 양극화 논란에 묻혀 표류

**3) IMF 체제 이후 영어 구사능력이 사회 진출을 위한 핵심 경쟁력으로 등장**

- 올해 3월 한국일보 기획취재팀 조사결과, 1995년 시중은행 임원 206명 중 유학과는 6명이었으나 2005년엔 152명 중 42명으로 급증. 상장기업 임원 중 유학과 비율 역시 1995년 전체 7,890명 중 668명(8.4%)에서 지난해 9,637명 중 1,296명(13.4%)로 급증

**2. 조기유학의 효과**

**1) 긍정적 효과**

- 다양한 문화 체험과 글로벌 마인드를 갖추는데 유리
- 세계화 국제화의 흐름 속에서 날로 중요성이 강조되는 영어 구사능력 향상
- 입시지옥에서 벗어나 개개인의 적성을 살릴 수 있는 선진 교육시스템 향유
- 취업에 유리. 다만 최근 유학생 인플레로 해외 명문대 졸업장이 출세의 보증수표가 되지 못하고 있음. 올해 7월 한국일보 기획취재팀이 텍사스주립대 한국 거주 동문들을 조사한 결과, 전체 동문 687명의 직업 분포는 대학교수·강사 67.1%, 대기업 11.8%, 국책연구기관·공사 10.3%, 외국계 기업 4.7% 등의 순이었음. 그런데 1989~98년 학부에 들어간 입학생 37명의 경우 대기업 56.7%, 국책기관 13.5%, 외국계 기업 13.5%, 중소·벤처기업 10.8%, 대학교수·강사 2.7% 등의 분포를 보임

**2) 부정적 효과**

- 과도한 경제적 부담
- 부적응 청소년들의 이탈과 가족 파괴
- 정체성 상실 우려. 특히 한글을 확실히 깨우치기 이전 연령대의 조기유학이나 현지 대학 진학까지 고려한 초등학생의 조기유학은 한국인임을 포기하는 행위. "한국인이면서 영어를 잘해야 경쟁력이 있는 것이지, 한국인도 미국인도 아니면서 영어만 능숙하게 구사하는 사람은 세계화 시대에 낙오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국어를 중요시하지 않는 사회는 정체성의 혼란을 겪고 활력을 잃기 마련입니다."(한국일보 3월7일자, 영어학 전공 교수 인터뷰 내용)

### 3. 조기유학의 폐해를 줄이려면

#### 1) 공교육의 내실화: 고비용·저효율의 영어교육 체계를 복유립식으로 대폭 뜯어고쳐야

- 영어습득의 최적기인 초등학생 시기에 의사소통이 가능할 정도로 집중적인 영어교육을 시키고, 그 이후엔 필요한 사람이 필요한 만큼 영어를 배우게 하자. 지금처럼 영어교육의 효과가 떨어지는 시기에 오히려 영어의 비중이 커지는 비효율 구조를 바꿔 초등 교육에 질 좋은 교사와 예산을 집중 투입하는 게 바람직하다. 우수한 영어교사를 발굴·육성할 수 있도록 영어교사 연수제도와 임용시험도 보완 필요

#### 2) 일상생활에서 영어를 접촉할 수 있는 기회 확대

- 파주영어마을과 같은 체험식 영어학습장 확대
- 국제학교·특목고 확대: 베이징에는 윈스턴 처칠이 나온 영국의 해로우 스쿨, 웨스턴 아카데미 등 영어권 명문학교 30곳이 들어와 있고 중국학교도 영어수업 국제반을 운영하고 있음. 두바이는 인구 150만명 정도의 소국이지만, 외국인을 위한 국제학교가 78개나 개설돼 있음. 다만, 교육 양극화에 대한 우려가 팽배한 현실을 감안, 수요자 부담 원칙을 적용하되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문호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제한적인 영어 공용어 사용: 경제자유구역이나 국제금융센터 등 외국계 기업이 대거 진출해 있는(또는 진출 예정인) 특정지역을 '영어사용 시범지역'으로 지정, 영어 사용을 공용어 수준으로 끌어올릴 필요가 있음